

은하박물관학교 · 박물관문화대학  
2011년 6월 29일(수) · 6월 30일(목)  
14:00~17:00

특별전 “바로크 로코코 시대의 궁정문화” 연계 강좌  
**바로크 로코코 시대 역사의 이해를 위하여**

**주 경 철**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교수



**국립중앙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

본 수업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진행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수업은 정시에 시작되오니 수업 5분전 까지 강의실(대강당) 입실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수업 시작 이후부터 중간 쉬는 시간 전까지는 강의실에 들어올 수 없으며, 수업 도중 강의실 밖으로 나갔을 경우에도 중간 쉬는 시간 전까지 강의실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 (3) 강의 교재는 회원에게만 배부합니다.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교육마당→교육자료에서 교재 파일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4) 수업 중에는 휴대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은하박물관학교 · 박물관문화대학

특별전 “바로크 로코코 시대의 궁정문화” 연계 강좌  
**바로크 로코코 시대 역사의 이해를 위하여**

발 행 국립중앙박물관

(140-026)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5

교육문화교류단 교육과

TEL / (02)2077-9319, 9332 FAX / (02)2077-9300

www.museum.go.kr

인 쇄 (주) 계 문 사 / (02)725-5216

# 바로크 로코코 시대 역사의 이해를 위하여

주 경 철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교수

## 1. 절대주의 시대

흔히 17~18세기 유럽의 역사를 ‘절대주의’ 시대로 표현한다. 시대의 대세는 강력한 국왕이 중심이 되어 국력을 신장시키는 것이었으며, 국왕이 귀족의 힘을 누르는 동시에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어 정치, 재정, 군사를 비롯한 국정 전반을 지휘하는 체제를 만들고 또 이를 위해서 왕권신수설 같은 이데올로기를 동원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루이 14세나 표트르 대제처럼 강력한 권력을 행사한 사례가 분명 존재한다. 그렇지만 실상은 이들 역시 완벽하게 권력을 장악하지는 못했으며, 귀족이나 도시 공동체와 같은 각종 특권집단들의 협력을 구해야 했다. 분명한 것은 이런 발전을 해나가는 국가들이 역사의 전면에서 치열하게 경쟁했고, 대개는 물리적 충돌을 계속했다는 사실이다.

근대 초기에는 신성 로마 제국과 프랑스와의 갈등이 유럽 국제관계의 중요한 뼈대였다. 이 양대 세력의 충돌이 기본적인 흐름이었고, 여기에 주변 각국들이 때로는 제국과, 때로는 프랑스와 연합하여 이 충돌에 휘말렸다. 16~17세기에는 이처럼 국제관계의 판도가 비교적 단순했지만 다음 시대인 18세기가 되면 영국과 프로이센의 성장, 그리고 이후에는 러시아의 등장으로 더욱 복잡한 관계가 형성되었다. 이런 변화는 급기야 초기의 기본적인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아서, 7년전쟁(1756~1763)에서는

구래의 라이벌이었던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가 동맹을 맺고 영국과 프로이센을 공동의 적으로 삼아 함께 싸우게 되었다. 통상 ‘외교혁명’이라고 칭하는 이 현상은 유럽 국제관계의 기본 골격이 바뀐 것을 뜻한다. 30년전쟁은 이러한 근대 유럽의 국제관계의 큰 틀이 형성되는 데에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30년전쟁에서 처음 문제가 된 것은 오스트리아의 정치적, 종교적 지배권이었다. 오스트리아는 명분상으로는 여전히 제국이었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격이 다른 수많은 정치체들로 나뉘어 있었고 거기에 신교와 구교의 대립이라는, 화해하기 힘든 종교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황제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통일을 이루어 중동부 유럽에서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려고 했으며, 내심으로는 이것을 넘어 유럽 전체를 복속시켜서 대제국을 건설하는 야심을 품고 있었다. 일개 지역 내부의 종교 문제로 시작된 전쟁이 결과적으로 17세기 판 세계대전으로 비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쟁 초기에는 덴마크와 스웨덴이 오스트리아의 신성 로마 제국에 도전했다가 실패하자, 결국은 이 국가들을 뒤에서 후원, 조정하던 프랑스가 직접 참전하여 동쪽의 제국과 서쪽의 에스파냐와 전쟁을 치렀다. 전쟁을 일단락 짓는 1648년의 베스트팔렌 조약은 황제의 원래 목표였던 독일 전역에 대한 종교, 정치적 통일 제국 건설의 꿈을 결정적으로 좌절시켰다. 이 전쟁에서 동쪽의 신성 로마 제국과 서쪽의 에스파냐라는 양대 세력과 전쟁을 벌여 우위를 지킨 프랑스는 국제정치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되었고, 다음 시대인 루이 14세 시대에는 절정기를 누리게 되었다.

1661년 이후 루이 14세는 모든 기회를 이용해서 자신과 프랑스의 명예를 높이려고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 우선 네덜란드의 힘을 억누르려는 첫 시도부터(1672~1679)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고, 그후에도 도발적인 전쟁을 계속 시도했으나 결과는 좋지 못했다. 오히려 1679~1688년의 10년 동안 각국이 반프랑스 동맹을 맺고 프랑스에 대항했다. 겨우 평화가 오는 듯했으나 에스파냐 왕위 문제로 다시 치열한 전쟁이 재개되었다. 루이 14세가 치른 여러 전쟁들의 결과는 오히려 프랑스의 지위 하락을 초래했다. 프랑스의 단독 헤게모니 장악 의도가 좌절된 이후 최종적으로는 프랑스가 영국 및 오스트리아와 힘의 균형을 이루게 되었다.

## 2. 궁정사회와 궁정문화

사회적 우월성과 전통적인 특권에 집착하던 귀족이 지배 엘리트로 변신하는 과정은 나라마다 다양하지만, 절대군주정의 중요한 정치사회적 측면을 이루었다. 그런 점에서 왕과 귀족의 만남의 공간인 궁정을 설명하지 않고는 왕과 귀족, 정치와 사회의 긴장과 타협을 이해할 수 없다.

궁정은 왕이 거주하는 사적 공간이자 정부가 위치한 공적 공간이었다. 왕의 공적인 업무와 사생활이 미분화된 상태였던 근대 초 유럽에서 궁정은 권력의 심장부 역할을 했다. 따라서 16세기 이후 군주권의 성장에 비례해서 궁정의 규모도 확대되었다. 각국의 군주들은 신민들과 다른 나라의 군주들을 압도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화려하고 웅장한 궁전을 건설하고 더 많은 인원을 끌어들였다. 군대에서처럼 궁정에서도 귀족에게 맡길 직위가 마련되었다. 높은 사회적 지위와 부가 수반된 궁정 시종직은 귀족의 충성심을 확보하는 데에 효과적이었다. 연금과 하사금도 중요한 미끼였다.

궁정의 팽창이 본격화된 것은 16세기 후반부터이다. 그 이전에 유럽의 군주들은 끊임없이 이동했다. 카를 5세는 치세 내내 거대한 합스부르크 제국을 질주했으며 프랑수아 1세도 1만8,000필의 말들을 대동하며 이동생활을 했다. 엘리자베스 1세도 귀족들의 성을 전전하며 잉글랜드 남부를 훑었다. 그러나 16세기 후반부터 각국의 군주들이 런던, 파리, 마드리드, 스톡홀름에 거주하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수도의 입지가 강화되었고 궁정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16세기 후반부터 군주들의 지방 순행이 줄어들면서 신민과의 접촉 기회도 드물어졌다. 펠리페 2세는 선왕인 카를 5세와는 달리 자신의 위엄이 손상될 것을 우려하며 공식순행을 삼갔다. 그는 마드리드 외곽에 엘에스코리알 궁전을 건설한 뒤에는 그 안에 틀어박혔다. 앙리 3세도 수많은 도시민들이 운집한 도시 입성식을 꺼렸다. 대신 그는 궁정의례에 더 관심을 기울였다.

궁정에서는 모든 권력이 왕에게 속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궁정사회의 모든 행위들을 지배하는 공적인 상징성이 요구되었다. 궁정의 대소사가 일종의 의식으로 조직화되고 사소한 일상생활조차 일정한 절차와 의전을 준수하는 궁정의례로 체계화된 것은 그런 이유에서였다. 이러한 궁정의례의 기원은 12세기 중세

유럽의 궁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기에 기사들은 싸우는 자로서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기사로서의 가치를 이상화한 기사도를 통해서 사회적 우월성을 강변했다. 궁정의 규모가 커지면서 궁정의례는 더욱 엄격한 형태로 발전했다. 궁정에 거주하게 된 귀족에게는 모든 일상생활을 일련의 의식 체계로 정형화시킨 궁정예절이 강요되었다. 식사하는 모습은 마치 발레 동작 같았고 수시로 열리는 무도회에서 추는 춤은 품행을 걸어로 드러낼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신체적 기술로 인식되었다. 기병의 특권을 보장해주던 말타기는 육체 길들이기의 방편인 승마로 바뀌었다.

이처럼 궁정예절을 익히는 과정을 거치며 귀족들은 점차 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습관과 거친 행동, 문맹의 오랜 타성에서 벗어나 교양 있고 세련된 궁정인이나 절도 있는 장교로 바뀌어갔다. 발다사레 카스틸리오네Baldassare Castiglione의 『궁정인 Cortegiano』(1528)은 전사귀족에서 세련된 궁정귀족으로 변해가던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한 책이다. 이탈리아의 궁정이라는 폐쇄된 공간 안에서 완벽한 형태로 정형화된 궁정예절의 기준과 지침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궁정인』에 의하면 귀족의 조건은 더 이상 출생이 아니라 문학과 예술의 감상능력과 우아한 매너 등이다. 실제로 나라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17세기 말의 귀족은 사회적 역할과 책무, 거주지 뿐만 아니라 사고와 행동 방식에서 중세 말의 귀족과 사뭇 달랐다.

각국의 군주들은 경쟁적으로 엄격하면서도 화려한 궁정문화를 도입했다. 이러한 궁정의례를 일상생활의 틀 속에 가장 위엄 있게 정형화한 인물은 루이 14세이다. 1682년 베르사유에 영구 정착한 루이 14세는 지난 몇 세기 동안 계속되어온 마구잡이식의 변화를 정비하여 궁정생활을 유례없이 엄격하게 조직화하고 체계화하는 데에 성공했다. 유럽의 군주들은 이러한 베르사유의 궁정문화를 도입하고 모방했다. 독일의 사회학자 엘리아스는 『궁정사회』에서 베르사유의 궁정예절을 사회 지배를 위해서 국가 권력이 고안한 정교한 통제방식으로 보았다. 엘리아스의 설명처럼 예절이 궁정의례의 원칙으로 자리잡게 된 데에는 국가 권력의 가공할 힘이 작용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것은 결투의 금지, 사치 금지법 등 사생활을 통제하는 일련의 조치와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궁정의례라는 외적 행태를 복종의 결과로만 단순화시키는 것은 위험하다. 외적인 복종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이루어진 권력과 부의 분배라는 뒷거래를 담보로 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베르사유라는 폐쇄적인 궁정사회를 중심으로 정교하게 가다듬어진 문화적 모델은 궁정 바깥으로 확산되었다. 궁정에 초대받지 못한 대다수 귀족들이 누구보다 먼저 경쟁적으로 궁정예절을 받아들였다. 귀족사회를 동경한 부르주아의 모방심리 역시 문화적 하향화에 역동적인 힘을 발휘했다. 17세기에 유행한 수많은 예절서가 그 증거이다. 1528년 베네치아에서 처음 출판된 『궁정인』은 이탈리아에서만 62쇄가 출판되었으며 1619년까지 60개 언어로 번역될 정도로 인기를 누렸다. 예절서의 주 고객은 부르주아와 지방귀족들이었다. 그들에게 예절이란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몸가짐 가다듬기 전략에 다름 아니었다. 그와 더불어 궁정의례도 점차 ‘문명’ 혹은 ‘교양’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 3. 문화적 저변의 확대

18세기에 문화의 대전통의 담당자는 매우 부유한 특권층의 세련된 교양층과 일군의 학자, 지식인 및 예술가의 두 집단으로 이루어졌다. 특권계급은 지배문화의 주된 고객이자 일부는 그 생산자였다. 프랑스에서는 궁정귀족과 고등법원의 판사를 포함하여 귀족의 약 10퍼센트가 대전통을 향유했다. 18세기의 고급문화는 국경이나 언어의 경계를 넘어 일종의 국제적 문명이었다. 문화 엘리트층은 라틴어에 대한 소양을 가졌고,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했다. 이들은 고전문화와 예술에 침윤되었고, 일부는 ‘대여행grand tour’을 통해서 로마를 방문하곤 했다. 이들은 계몽사상의 일부 저작을 포함하여 신학, 법, 과학, 의학, 철학 등 일반 공중이 별 관심을 두지 않는 분야의 출판을 사실상 후원했다. 18세기 프랑스에서 출판 허가를 받은 신간의 수는 1750년에 약 300종에서 1780년대에 1,600여 종으로 늘었는데, 라틴어 고전과 수사학에 관한 책은 일정한 독자층을 계속 확보하고 있었고, 역사, 예술, 과학에 관한 도서의 수는 꾸준히 증가한 반면에 신학서의 비율은 전체의 35퍼센트에서 약 10퍼센트로 떨어졌다. 시는 라틴어와 함께 고급문화의 징표였다. 고전의 표현을 따르는 정형화된 작품들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세기말이 되면 독일의 실러나 영국의 워즈워드가 신고전주의를 넘어 개인의 내면과 열정을 표현하는 근대시를 발표하여 낭만주의를 준비했다. 고급문화의 가장 두드러진 현장은 살롱이었다. 살롱은 고급문화의 주요

생산자인 작가, 학자, 지식인, 예술가들과 주된 후원자이자 소비자이며 평가자인 부유한 유한 특권층이 만나는 자리였다. 살롱은 프랑스의 파리가 중심지였으나,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이베리아 반도, 스칸디나비아, 폴란드에도 산재했다. 살롱의 존재이유는 ‘훌륭한 대화’를 나누는 데에 있었고, 조프랭 부인Mme. Geoffrin의 살롱이 가장 유명했다. 하지만 살롱을 진정한 공론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진지한 문학적 대화를 이끈 런던의 몬터규 부인Lady Montagu의 살롱과 같은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대화의 내용보다는 형식을 중시하고 정치나 시사에 관한 토론을 금기시했다. 살롱에서 여성이 여주인으로서 주요한 구실을 했지만, 이를 여성 해방의 한 지표로 볼 수는 없으며, 살롱이 세기 중반 이후부터 계몽사상의 확산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계몽사상의 형성에 기여했다는 것은 지나친 견해이다.

음악과 회화 역시 대전통의 일부였다. 세기 초에 예술가들은 궁정, 교회, 귀족의 후원을 받아 특권적인 후원자들을 위해서 활동했으나 점차 그 제약을 넘어섰다. 유명한 음악가로서 스카를라티 부자는 모두 궁정음악가였고, 바흐(1685~1750)는 독일의 여러 궁정을 거쳐 라이프치히의 교회 지휘자였고, 헨델(1685~1759)은 영국 조지2세의 후원을 받았고, 하이든(1732~1809)은 1761~1790년에 전설적인 부자인 에스테르하지 가문의 악단 지휘자로 일했다. 이에 비하면 모차르트(1756~1791)는 불운했다. 그는 유럽 궁정을 순회하기도 하고 고향인 잘츠부르크에서 종종 마음에 들지 않은 대주교에게 봉사하곤 했는데, 후한 대접을 받지 못했고 그마저도 후원자와 다투고는 사직했다. 이런 개인적인 불행으로 그는 후원체제에서 벗어나 공개 연주회를 조직했다. 사실 공개 연주회는 서유럽에서 이미 18세기 초에 생겨났고, 이후 유럽의 수도들에는 점차 연주회장이 세워졌다. 헨델은 생애 말년에 연주회를 통해서 큰돈을 벌었으나, 모차르트는 가난하게 죽어 빈의 공동묘지에 묘지석도 없이 묻혔다. 모차르트는 선배들의 바로크풍의 규칙적인 선율에서 벗어나 다채롭고 자유로운 작곡의 세계를 만들었다. 특히 오페라 「마적」(1791)은 이성의 세기에서 조차 근대 문화의 토대에 종교가 놓여 있음을 보여주었다. 동시에 이 마지막 작품은 인류의 덕성과 사랑의 능력에 대한 계몽사상의 믿음을 음악으로 승화시켰다.

회화 역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문화의 세속화는 장식예술의 새 양식인 로코코Rococo의 발전에서도 드러났다. 로코코 양식은 프랑스에서 시작되어 ‘루이 15세 양식’으로도 불렸지만,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도 크게 유행했다. 그것은 자갈과 조가비(각기



rocailles와 coquilles)를 연상시키는 구불구불한 곡선을 선보여, 이로부터 그 이름이 나왔다. 로코코는 규모의 미소성(微小性)을 강조하여 바로크의 형태를 우아한 장식적 양식으로 축소시켰다. 로코코는 직물과 색상을 결합시켜 역동적이고 심지어는 성애적인 주제를 연출했다. 장식의 요소로서 새나 꽃과 같은 자연적 주제가 종교적 대상을 대체했다. 회화에서는 그리스 신화와 종교적 주제가 여전히 인기였지만, 새로운 주제들이 추가되었다. 프랑스 화가 장 앙투안 바토(Jean Antoine Watteau)는 한가한 시간을 보내는 귀족과 같이 세속적이고 가벼운 주제를 사실적으로 그렸다. 그는 후원체제로부터 떨어져 나와 미술상을 통해서 그림을 팔았다. 회화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자연과 일상의 풍경이 또한 인기를 끌었다. 중간 사회층으로의 예술시장의 확대와 예술적 취향의 세속화가 가장 두드러졌던 곳은 영국이며, 윌리엄 호가스(William Hogarth)는 런던의 일생생활을 애정을 가지고 풍자적으로 그렸다. 프랑스에서는 ‘예술원’(회화 및 조각 아카데미)이 주관하는 미술전(Salon)이 1737년에 일반에게 공개되기 시작하여 예술의 소비층 확산에 기여했다. 예술비평이 소책자처럼 유통되어 토론과 논쟁을 불러왔고, 계몽사상가들은 검열에 맞서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요구했다. 흠은 당국이 부과하는 예술의 형식적 기준을 거부하고 미학적 평가를 강조했다. 드니 디드로(Denis Diderot)와 레싱은 왕과 왕비, 제후들, 성자와 죄인만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삶을 그려낼 것을 주문했다.

출판업의 팽창과 독서 공중의 성장은 18세기의 가장 중요한 문화적 사실이다. 북서 유럽에서 부르주아지와 중간층의 영향력 증대는 문화적 삶을 변모시키기 시작했다. 독자층이 크게 늘어 저자층과 출판업의 팽창,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매체와 소통의 등장에 이바지했다. 귀족과 부유한 부르주아지의 경계는 약화되었고, 문화는 궁정과 성의 간헐 세계로부터 공적 영역으로 향했다. 문맹률의 감소는 잠재적인 독자층을 늘렸다. 세기 말에 이르면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의 남성 가운데 절반에서 3분의 2가 책을 읽을 수 있었다. 여성은 이보다 낮아 3분의 1에서 절반에 불과했지만, 새 독자층으로 등장했다. 유럽에서 남부와 동부로 갈수록 문맹률이 높아졌고, 여성이 초보적인 교육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제한적이었다. 왕비인 마리-앙투아네트조차 자주 문법과 철자를 잘못 사용했다. 독서열은 도서관과 서적상들이 조직한 독서 클럽과 순회도서관의 수를 크게 늘렸다. 주요 대도시에서 도서관은 책을 시간 단위로 빌려주었고, 세기 말에 순회도서관은

유럽에서 1,000여 개에 달하여 특히 여성 독자들이 책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개인 서재도 더 일반화되었다. 대체로 글을 아는 이가 마치 이야기꾼이 재담을 풀어가듯이 주위에 읽어주는 집단 행위였던 독서가 이제 사적이고 개인적인 행위로 바뀌었다.

출판과 독서의 팽창을 선도했던 것은 네덜란드와 영국이다. 영국은 특히 신문과 잡지의 발전을 이끌었다. 정기간행물의 수는 1700년에 25개에서, 1760년에 103개, 1780년에 158개에 이르렀다. 이전에 잡지가 특정 분야에 국한되거나 특정 정치적, 종교적 견해를 대변했으나, 18세기에 들어 종합지가 등장했다. 특히 1709년에는 『수다쟁이Tatler』가, 1711년에는 『목격자Spectator』가 창간되어 세련된 문체로 독자들에게 교훈과 즐거움을 동시에 맛보게 하여 외국에도 새 언론의 모범이 되었다. 독서층의 성장으로 집필만으로 생활이 가능한 작가층이 형성되었으며, 새뮤얼 존슨이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18세기의 또다른 혁신은 소설의 등장이다. 근대 소설은 1740년대에 영국에서 탄생했다. 그것은 있음직한 허구를 통해서 특히 여성 내면의 정서를 그려내어 이를 공론의 영역으로 끌어냈다. 대표적인 소설가로는 새뮤얼 리처드슨과 헨리 필딩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의 영향으로 여성 작가가 등장했고, 괴테와 루소와 같은 뛰어난 지성을 통해서 소설은 고급문화의 일부가 되었다.

18세기를 통해서 가장 많이 읽은 것은 여전히 종교서적, 책력, 민담 등이었다. 그러나 과학과 자연사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소설과 시사물도 인기를 끌어 신학 및 민간신앙에 관한 출판을 잠식해 들어갔다. 계몽사상은 역사학을 근대 학문으로 만드는 데에 기여했다. 모든 인간의 경험, 비유럽의 문화까지 포함하여 역사적 탐구의 대상이 되었다. 계몽사상의 주요 저작들 가운데 일부는 ‘문필공화국’ 밖으로 사실상 알려지지 않은 반면에 일부는 당대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L'Esprit des lois』은 1748년에 출판되어 처음 18개월간 22판을 거듭하며 대략 3만5,000부가 팔렸다. 조르주 뷔퐁Georges Louis Leclerc de Buffon의 30권짜리 『자연의 체계』는 엄청난 분량에도 불구하고 큰 성공을 거두었다. 볼테르의 단편소설 『칸디드Candide』는 출판년도인 1759년에만 8판을 찍었다. 레날Raynal의 『두 인도의 철학적, 정치적 역사Histoire philosophique et politique des deux Indes』는 70판을, 루소의 『신엘로이즈La Nouvelle Héloïse』는 1761~1800년에 72판을 찍어 최고 기록을 세웠다.

## 4. 대조의 시대

18세기는 대조의 시기였다. 궁정, 성, 우아한 도시 저택에서는 음악회가 열렸던 반면에, 농민은 자신의 것이 아닌 주로 귀족, 국왕, 교회, 일부 부르주아의 땅을 일구고 날품팔이는 도처에서 온갖 잡일에 땀을 흘렸건만 대부분이 생존에 허덕였다. 이 대조는 또한 농노제가 여전히 존재했고 도시와 부르주아지가 거의 부재했던 중동부 유럽과 그렇지 않은 서부 유럽, 귀족이 여전히 막강했던 대부분의 유럽과 귀족과 부유한 평민의 구별이 사실상 사라졌던 북부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위스의 ‘도시대’의 유럽의 그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대조는 18세기에만 특유한 것은 아니었으며 적어도 수백 년의 무게를 가지는 역사적 형성물이다. 그러나 18세기에 이르면 그것은 새로운 변화와 접목되었다. 18세기에는 귀족들이 여전히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18세기 후반에 비록 일부 지역에서이기는 하지만 역동적인 사회경제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것은 1760~1970년대부터 정치적 결과를 야기하기 시작했다. 귀족과 평민의 대조라는 전통적인 신분사회의 틀이 서서히 유산자층과 무산자층이라는 새로운 계급적 구분선으로 대체되기 시작했다. 계급적 질서는 아직 미미했지만 미래의 방향을 타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유럽 일부 지역의 근대적 발전은 중동부 유럽과의 대조를 더욱 뚜렷하게 했다.

# 【 2011년 은하박물관학교 · 박물관문화대학 】

## “국립중앙박물관 올해의 특별전시 산책”

- 은하박물관학교 2011년 4월 13일(수)~11월 30일(수) 오후 2시~오후 5시
- 박물관문화대학 2011년 4월 14일(목)~12월 1일(목) 오전 2시~오후 5시  
 ▶ 박물관문화대학 3강, 4강, 5강, 7강은 4월 27일(수), 5월 4일(수), 5월 19일(목), 5월 25일(수) 오전 10시~오후 1시
- 장 소 :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

연번	은하 (수)	박물관 (목)	강좌 주제	비고
1	4. 13	4. 14	조선시대 묘지와 묘지명	삶과 죽음의 이야기, 조선묘지명 (3. 1~4. 17)
2	4. 20	4. 21	중국 청자의 역사	차와 향 그리고 혼을 담다, 신안용천청자(3. 22~6. 19)
3	4. 27	4. 27(수) 10시~1시	한국의 청자-부안 유천리 도자를 중심으로	자연의 노래, 유천리 고려청자 (4. 5~5. 29)
4	5. 4	5. 4(수) 10시~1시	대동여지도와 한국 지도의 전통	대동여지도, 지도에 담은 동방의 큰나라(4. 26~7. 24)
5	5. 11	5. 19 10시~1시	한국 전통 국악의 세계	우리 악기, 민족의 맥박 (5. 10~6. 26)
6	5. 18	5. 19 2시~5시	바로크 시대 회화	바로크 로코코 시대의 궁정문화 (5. 3~8. 28)
7	5. 25	5. 25(수) 10시~1시	로코코 시대 회화 바로크와 로코코 미술과 건축에서의 공간성	〃
8	6. 1	6. 2	바로크와 로코코 미술과 건축에서의 공간성 로코코 시대 회화	〃
9	6. 8	6. 9	바로크 시대의 문화와 삶	〃
10	6. 15	6. 16	충남미 식민지 시대 바로크의 현재성과 정치윤리학적 함의	〃
11	6. 22	6. 23	바로크와 로코코 시대의 장식미술품	〃
12	6. 29	6. 30	바로크 로코코 시대 역사의 이해를 위하여	〃
7. 6(수)~7. 7(목) 수업 없음 (대강당 및 교육관 시설점검기간: 7.4~7.10)				
13	7. 13	7. 14	바로크 시대 음악	〃
14	7. 20	7. 21	유럽의 르네상스와 바로크 조각	〃
7. 27(수)~8. 11(목) 수업 없음				
15	8. 17	8. 18	외규장각 의궤(1)	외규장각 의궤(7. 19~9. 18)
16	8. 24	8. 25	외규장각 의궤(2)	〃
17	8. 31	9. 1	외규장각 의궤(3)	〃
18	9. 7	9. 8	외규장각 의궤(4)	〃
19	9. 14	9. 15	외규장각 의궤(5)	〃
20	9. 21	9. 22	중국의 길상	중국의 길상(9. 6~12. 4)
21	9. 28	9. 29	조선시대 초상화의 흐름	초상화전(9. 27~11. 6)
22	10. 5	10. 6	사실주의와 전신사조의 전통	〃
23	10. 12	10. 13	초상화 제작의 새로운 변화	〃
24	10. 19	10. 20	어진의 제작과 불안	〃
25	10. 26	10. 27	자화상과 여인초상	〃
26	11. 2	11. 3	문자로 본 고대인의 생활(1)	문자로 본 고대인의 생활 (10. 4~11. 27)
27	11. 9	11. 10	문자로 본 고대인의 생활(2)	〃
28	11. 16	11. 17	문자로 본 고대인의 생활(3)	〃
29	11. 23	11. 24	문자로 본 고대인의 생활(4)	〃
30	11. 30	12. 1	인도 불교미술	인도 불교미술전(12. 19~2012. 3. 4)

\* 강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